

필체·주소지 같은 입당원서 막판 무더기 접수

민주당 광주 광산갑 권리당원 불·탈법 전수조사 이용빈 지역위원장 “한 입지자의 적폐정치” 성명 발표

광주시 광산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7월까지 신규 모집된 광산갑 1만여명의 권리당원 중 9000여명이 대상이며, 자격을 박탈당하는 권리당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며 내년 총선의 이 지역구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광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권리당원 입당원서가 제출되는 등 ‘조직적 권리당원 모집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산갑을 중심으로 무더기 당원 접수가 많아 지난 11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입당원서를 대리 제출한 경우 등 9000여명 대해 전수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서구 K아파트 한 동에 주소지를 둔 115명에 대해서도 당원자격을 불허했다. 한 아파트에서 당원이 한꺼번에 모집됐고, 일부 당원의 주소지 또한 겹쳐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대리 접수된 광산갑 입당원서 전체를 반려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한 입당원서만 제21대 총선 권리당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타인을 통해 접수된 입당원서는 모두 전수 조사 대상이다.

이처럼 입당원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거주 유형별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거주유형별 증빙자료가 광

산갑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장(학교)이 없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당원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별 권리당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7월 마무리된 신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 광산갑 지역구에서 1만여명이 접수됐고, 이중 상당수가 본인이 직접 입당원서를 내지 않거나 팩스·대리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명의 입후보자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

하는 인근 광산읍의 경우, 신규 권리당원이 8000여명인 것에 비해 현재 2명이 경쟁하고 있는 광산갑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돼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제, 이 지역 한 정치인이 제출한 수백여장의 권리당원 입당원서의 필체가 동일해 민주당이 경고를 하고, 한 주소지에 무더기 입당원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영남과 충청에 주소지 둔 유권자도 광산갑 권리당원으로 입당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 광산갑지역위원회 이용빈 위원장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는 한

입당자가 구태·적폐 정치 공화국 선거 공식에 매몰돼 탈법적 당원 모집으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광산갑 지역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전수 조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대다수가 연락이 없거나 입당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의 전수 조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모집된 권리당원 상당수가 당원자격을 잃게 되고, 이는 내년 광산갑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구 고등법원 국감 지난 1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법·가정법원, 부산고등·지법·가정법원, 울산지법·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확정

한일 관계개선 변곡점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방일 기간은 오는 22~24일 2박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왕 즉위식은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년 만에 있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이 이

뤄질 가능성도 크다. 아베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50여차례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법원 장용판결 이후 1년 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화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날 경우 두 지도자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지만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한 양국 간의 시각 차가 크다는 점에서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이슈에 ‘국감 실종 사태’

상임위마다 의혹 공방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5부 능선’을 넘었지만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의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정책 감사·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2일 시작된 국정감사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건진이 충돌하는 등 ‘조국 대전’을 치렀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관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정

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각각 다뤄졌다.

여야는 13일 이번 국감이 정책 이슈가 사라진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는 ‘내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조국 지키기’에 몰입한 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어 내는 데 당력을 쏟아부를 계획이어서 ‘조국 대전’은 마지막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 ‘정권 재창출’...한국당 ‘정권 심판’

여야, 내년 총선 전략 수립...군소정당, 정계개편 ‘관심’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4·15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토대로 21대 총선에서 승리, 2022년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들은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정책’과 ‘인물’의 두 축으로 총선을 치러낸다는 구상으로 물밑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마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새 인물 ‘수혈’로 유권자의 ‘기대지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조국 정국’에서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큰 부담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선거전용 전환을 위한 체제가 나뉜다. 우선 선거전략의 위기를 기획하는 선거기획단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영입위원회를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기획단 산하에는 선거공약기획단을 하부조직으로 두기로 했다. 이곳에선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 당 사무처 등이 머리를 맞대고 광역별, 세대별 공약을 구상한다. 아울러 당은 인재영입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새 인물 발굴에 나서고 있다. 다만 조국 정국을 기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은 걱정거리다. 이런 흐름은 ‘최대 승부처’로 삼고 있는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선거 준비에도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조국 정국을 계기로 ‘반문’ (反文·반문재인) 여론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조직 정비와 공천을 마련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의원을 대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물갈이’ 작업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필승 카드는 이른바 중도우파 세력까지 한 데 담아내는 ‘보수 대통합’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권에 돌아선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려면 해빙만 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등이 변수로 꼽힌다.

◇정의당=정의당은 총선 필승을 위한 1차 전략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 확장에도 나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 전원을 지역구에 출마시켜 지역구 의석 ‘6+a’ 목표를 달성, ‘비례정당’ 꼬리표를 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군소정당=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들의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하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 진영의 비당권파가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마감되는 대로 탈당이 가시화되면서 다음달 초순 야권별 정계개편이 시작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평화당을 박차고 나간 대안신당은 인재영입 난항으로 창당 작업이 차츰 늦어져 총선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1월 15일 이전, 즉 11월 초-중순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안신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함께 국민의당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을 이어가면서 제3차대 신당 창당을 논의 중이다. 평화당은 일단 자력으로는 내년 총선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의 단체들과 정치적·정책적 연대를 추진하고, 나아가 이들과 손잡고 재창당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 “檢 패스트트랙 소환 조사 못 나가”

자유한국당은 13일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언론장악’ 및 KBS수신료 분리정수 특위 내대표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감이 종료된 이후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오는 17일 일부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서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문화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불법 사·보임이 이뤄졌고, (패스트트랙 반대)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